



## 패널자료를 이용한 노년기 거주형태 변화분석

김 정 석\*\*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노인들의 거주형태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논의와 연구들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 대부분이 횡단적 자료(단일 시점이든 여러 시점이든)와 분석에 의존함으로써 노인들의 거주형태가 생애주기를 따라 변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제1차 및 제6차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해 노년기 거주형태의 유동성을 경험적으로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거주형태의 출현율(prevalence rate)과 전이율(transition rate)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자녀동거여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시점에 대한 횡단적 분석결과는 노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녀별거경향의 차이를 보여주더라도 생애주기에 따른 역동성을 보여주기에 한계가 많음이 확인되었다. 두 시점 간의 거주형태 변화에 대한 패널분석에서는 다수 노인들의 거주형태가 주어진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형태의 변화를 경험하는 데에는 연령증가와 배우자 상태변화 등이 중요한 요인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생애주기적 변화의 효과는 대부분의 계량적 연구에서 유추되는 수준이거나 질적 연구에서만 보고되어 왔던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노년기 거주형태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한편 변화 가능성과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노년기 거주형태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론적 논의와 접근방식은 생애주기별 변화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다른 연구영역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핵심단어:** 패널자료분석, 다항로지분석, 전이율, 다항로지모형확률, 노년기 가족관계

### I. 머리말

최근 급격한 출산력 감소 및 평균수명 연장은 노인수와 노인비율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 한국은 2000년도 현재 노인인구가 7% 수준인 고령화사회(aging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41-B00382). 이 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해 준 한국노동연구원에 감사드린다.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society)로 접어들었으며, 앞으로 20여년 이내에 이 비율이 배가하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김두섭, 2001).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사회변동의 제 측면과 연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지대한 정책적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sup>1)</sup>. 특히 이미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사회와는 달리 고령화문제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책이 미비한 한국사회의 경우, 노인부양의 문제는 여전히 가족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Kim, 1999a; 김두섭, 2001; 김정석, 2001).

노인 혹은 노년기의 가족관계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 중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의 증가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서 관찰되며 심각하고 급박한 사회적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Kim et al., 1996; Hermalin, 2000). 자녀별거노인의 증가에 따른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사회적 불안은 이러한 거주형태와 노인복지간의 상관성에 기초한다. 이는 유교적인 전통이 강한 아시아지역의 사회에서 가족성원이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 왔으며, 이러한 지원은 대체로 노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거주형태를 통해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Hashimoto, Kendig and Coppard, 1992).

물론 자녀와의 별거 자체가 가구단위를 넘어서는 가족지원의 흐름과 교환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대간의 동거 역시 노인들에 대한 지원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Martin, 1989; Mason, 1992). 실제 아시아지역의 많은 연구들은 개별가구단위를 벗어나 세대간 가족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Hermalin et al., 1990; Casterline et al., 1991; Knodel and Debavalya, 1992). 한국의 경우에서도 가구를 넘어서는 가족지원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김두섭 외, 2000; Kim and Kim,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원이 적고 일상활동의 제한을 받는 노인들에게는 세대간의 동거를 통한 가족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와 안녕에 있어 자녀와의 동거 여부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으며, 노년기 거주형태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 또한 지대할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한국노인들의 거주형태에 관한 기존연구들과는 달리 개인들의 관점에서 거주형태의 지속성과 변화를 분석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노동패널조사자료 중 제1차(1998년)와 제6차(2003년) 자료에 대한 연계분석을 실시한다. 여기에는 60세 이상 노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거주형태차이, 두 조사 시점간 거주형태 변화 및 거주형태조건별 변화 등이 포함된다.

1) 고령화사회와 그 사회적 파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경험적 연구의 대표적인 예는 박경숙(2003a), 조성남(2004) 등을 들 수 있다.

## II. 노년기 거주형태 접근현황과 문제점

노년기 거주형태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그 접근방식에 따라 횡단적 분석과 종단적 분석으로 구분가능하다. 다음의 <표 1>은 노년기 거주형태에 관한 최근의 국내의 연구들을 추출하여 접근방식별로 정리하고 있다. 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내의 연구들은 단일 시점에서 노년기 거주형태의 다양성과 결정요인을 찾으려는 횡단적 연구에 속한다. 이들 연구들은 각자가 가진 거주형태 분류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시점에서 발견되는 노인들의 거주형태를 이들의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과 연결시킨다는 성격을 공유한다. 그러나 이들은 주어진 시점 이전의 거주형태, 그리고 이전 시점과 현재 시점 간의 거주형태 변화에 관해서는 매우 제약적인 설명만을 제공하며 경험적 분석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횡단적 접근을 취한 연구들은 시간축을 둘러싼 노년기 거주형태의 변화를 포착할 수 없다는 취약성을 갖는다.

노년기 거주형태에 대한 또 다른 접근은 시점 간의 변화를 염두에 둔 종단적 연구이다. 종단적 연구는 추이연구, 코호트연구, 패널연구 등으로 구성된다. 다음의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종단적 연구의 대부분은 추이연구(특히 국내 연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추이연구는 자녀동거 혹은 별거 출현율(prevalence rate)에 근거하고 있다<sup>2)</sup>. 또한 특정 거주 형태 출현율에 근거한 분석은 코호트 접근에서도 발견된다.

측정방법의 공식적인 측면에서 이 같은 출현율은 전이율과 엄격히 구분될 뿐 아니라, 전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못한다<sup>3)</sup>. 실제로 출현율에 기초한 추이연구는 전이를 오도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만의 노인거주형태를 다룬 한 연구(Hemmalin et al., 2005)는 자녀동거 노인의 출현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주어진 시기에서의 거주형태 전이율은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한다. 즉 출현율에 기초한 추이분석이 주는 인상과는 달리, 개별노인들의 거주형태는 일정기간 상당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시점의 자녀별거 노인비율(출현율)은 이전 시점에서 해당 시점까지 전이율

2) 가령 김정석(2002)은 인구센서스자료 분석을 통해, 자녀없이 사는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1980년의 19.5%에서 2000년의 50.9%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한다.

3) 출현율은 해당 인구에서 특정 거주형태에 속한 인구 비율을 제시하는 반면, 전이율은 주어진 거주형태에 속한 인구가(엄격히 말해서는 노출시간의 개념이 되어야겠지만) 다른 형태의 거주형태로 옮기는 비율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lt;표 1&gt; 거주형태와 관련된 최근의 국내의 연구사례

구분		국내	해외
횡단적 연구		김두섭 외, 2000; 윤순덕·한경혜, 2000; 정경희, 2000; Kim and Rhee, 2000; Lee and Weber, 2000; Lee and Ham, 2001	Logan and Fuqin, 1999; Angel, 2002; Agree, Biddlecom, Chang and Perez, 2002; Shah, Youmt, Makhdoom and Menon, 2002
종단적 연구	추이연구	김정석, 2002; 박경숙, 2003b; Kim and Anderson, 2003; 김정석, 2005	Knodel and Chayovan, 2001; Martinez, 2002; Tan, 2002
	코호트 연구		Jappelli, 2000; Chen, 2001
	패널연구		Choi, 1999; Frankenberg, Chen and Ofstedal, 2002; Ram, 2003; Hermalin, Ofstedal, Baker and Chuang, 2005

의 가중평균치(weighted average)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가중치는 이전 시점의 자녀별거 노인비율과 자녀동거 노인비율이 된다. 이는 출현율이 전이율을 그 구성요소로 포함하지만, 여전히 이전 시점의 특정 거주형태 비율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자체가 노인거주형태의 동적인 모습을 충분히 그리고 적절히 포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출현율 비교를 통해 노인거주형태 변화의 동태를 파악하려는 노력은 제약될 수밖에 없으며 자칫 현실에 대해 왜곡된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출현율과 전이율 구분은 거주형태의 역동성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진다. 노인들의 거주형태는 자녀들과 자신들의 필요와 능력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이는 자녀들과 동거하던 노인들이 별거로 옮겨 갈 수도 있으며, 자녀와 별거하던 노인이 동거로 옮겨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 거주형태의 전이여부(횡단적 연구에서 접근하기 힘든)와 전이율(추이연구와 코호트연구에서 제한된)에 대한 관심은 거주형태의 유동성을 구체적인 연구과제로 부각시킨다.

거주형태의 유동성에 대한 학문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던 이유로 거주형태의 전이 파악에 요구되는 패널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거주형태와 그 결정요인에 대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1994년, 1998년, 2004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노인실태조사나 개별 연구자들이 수행한 횡단적 조사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매년 실시되어온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해 거주형태의 역동적인 측면을 파악하고자 한다.

### III. 연구내용과 방법

노인 개인의 관점에서 경험하게 될 거주형태의 변화와 지속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노동패널조사의 제1차 연도인 1998년과 제6차 연도인 2003년에 나타나는 60세 이상 노인들의 거주형태를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접근한다. 이 부분은 기존의 연구들과 나란히 횡단적 분석을 실시한다. 이로부터 얻은 결과 중 연령과 결혼상태별 거주형태차이에 주목한다. 이는 연령이 생애주기상의 단계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이며, 결혼상태는 생애주기상 변화의 가능성이 높은 변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얻은 결과들은 이항로짓모형에서 구해질 수 있는 예측확률의 형태로 제시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출현율에 근사한 개념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제1차 조사와 제6차 조사에 모두 응답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기간 간격에 해당하는 5년 동안의 거주형태 변화와 지속성을 다항로짓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횡단분석적 접근과는 달리 1998년도에 60세 이상인 노인들의 5년 이후 거주형태를 4개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한다. 동거지속, 동거에서 별거로 변화, 별거에서 동거로 변화, 별거지속. 다항로짓모형은 거주형태의 변화와 지속성을 통계학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고 전달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덜어주는 한 방법은 모형식으로부터 각 범주의 예측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예측확률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전이율 개념에 가깝다. 본 연구에서 예측확률은 연령과 결혼상태변화를 그 중심에 둔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제1차 조사(1998년)에서 파악된 거주형태에 따라 다른 형태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분석을 실시한다. 앞에서 다항로짓모형은 그 결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미 지적하였다. 이러한 어려움과 함께, 준거집단과 비교 집단이 대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직관적인 이해가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가령, 동거를 지속할 확률과 별거에서 동거로 이동할 확률간의 대조와 비교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비해 이전에 자녀와 동거하였던 노인 중에서 현재 별거할 확률이나 이전에 자녀와 별거하던 노인 중에서 현재 동거할 확률 등은 보다 친근한 해석이 될 것이다. 제3부에서는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해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한다. 여기서 얻은 결과는 제2부에서 살펴본 결과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특정 개인에게 주어진 거주형태에서 다른 형태로의 변화가 두 개의 연속적인 확률의 조합이기 때문이다(이전의 거주형태에 속할 확

불\*이후의 거주형태에 속할 확률). 제3부는 후자의 경우에 선택적으로 집중한 분석이며, 제2부는 전체의 조합 확률을 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이 연구는 생애후기의 거주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성,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제한함을 미리 밝혀둔다. 대체로 노년기 거주형태는 개인의 경제상황, 건강상태, 가족의 가용성(자녀 및 배우자), 선호도 등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모형들은 노인들의 거주형태에 관한 국내외의 여러 연구에서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국내 연구사례로는 원영희(1995), 유성호(1996), Kim and Rhee(1997, 2000), 김두섭 외(2000), 김정석(2005) 등이 있다. 외국 연구로는 Goldscheider and Jones(1989), Kojima(1989), Martin(1989), Tsuya and Martin(1992), Da Vanzo and Chan(1994), Logan and Fuqin(1999), Zimmer and Kim(2001)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거주형태 변화에 접근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보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거주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이들 요인 자체의 변화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획득하기란 쉽지 않다. 가령, 건강수준이란 시점에서 측정되었지만 다른 시점에서는 측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노년기 거주형태가 노인과 자녀세대간의 결합의사결정(joint decision making)이라 볼 때 자녀들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몇 가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주목하여 노년기 거주형태의 차이와 변화를 접근하도록 한다.

#### IV. 자료와 변수

이 연구는 제1차 노동패널조사(1998년)와 제6차 노동패널조사(2003년)를 이용하고 있다. 제1차와 제6차 조사를 선택한 이유는 두 조사 간에 5년이라는 기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노년기 거주형태 변화가 관찰될 것이라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5세 단위로 나누어진 연령대별 전이를 살펴보는데 두 조사 시점 간 5년이라는 간격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가령 제1차 조사에서 60세였던 분석대상자는 5년 후인 제6차 조사에서 다음 연령대인 65세로 진입하게 된다.

분석을 위해서는 제1차와 제6차 노동패널조사에 모두 응답하였으며 제6차 조사 당시 적어도 자녀가 1명 이상인 사례로 제한하였다. 유자녀 사례로 제한한

것은 무자녀 노인들에게 자녀와의 동거는 선택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석에 이용된 사례는 분석내용에 따라 다르다. 제1부 횡단적 접근에는 제1차와 제6차 조사 당시 만60세 이상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2부 다항로지분석과 제3부 거주형태별 전이분석에서는 제1차 조사에서 60세 이상인 노인(제6차 조사에서 65세 이상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을 60세 기준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소 자의적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자료 분석상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였다. 우선, 60세 미만 대상자들의 경우 이들의 부모가 생존할 가능성이 60세 이상의 대상자들에 비해 높다. 만약 60세 미만 대상자들이 초고령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이들은 2세대 가구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들은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로 구성된 2세대 가구와 혼동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60세 이상의 대상자들에게서 이러한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 비율은 훨씬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노인에 관한 통상적인 분석에서처럼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것은 보다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사례분포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노인들내에서 낮은 연령층의 비율이 높다. 따라서 60-64세를 제외하면 사례수가 크게 축소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와 사례분포는 <표 2>와 같다. 제1차 조사에서 추출된 분석대상은 60세 이상 노인 1234명이다. 제6차 조사에서 추출된 분석대상은 60세 이상 노인 1848명인데, 이 중 제6차 조사 현재 60-64세 이상은 전이율 분석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다시 밝혀둔다. 따라서 전이율 분석은 제1차 조사의 분석대상인 1234명에 관한 것이며, 이들은 제6차 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된다.

제시된 <표 2>와 같이 거주형태는 자녀와의 동거여부를 기준으로 동거와 별거로 구분한다. 자녀와의 별거는 유자녀 노인들이 일인, 부부 혹은 비혈연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자녀와의 동거는 적어도 2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를 뜻한다. 이렇게 정의된 자녀와의 동거가구에는 60세 이상 노인과 그 부모들로 구성된 가구들도 포함되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 가구는 60세에 근접한 노인의 입장에서 자녀와의 동거가구는 아니다. 제1차 조사(1998년) 사례 1234명 중 조사시점 현재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54.7%, 별거비율은 42.1%이다. 그러나 5년 후인 제6차 조사(2003년)에서는 60세 이상 사례 1848명 중 동거비율은 47.2%, 별거비율은 52.8%이다. 따라서 두 시점간에 60세 이상 유자녀 노인들의 별거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1차와 제6차 조사 기간 동안의 거주형태 변화는 역시 자녀와의 동거여부를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두 시점 간 거주형태를 조합하면 동거지속, 동거에서 별거로 이동, 별거에서 동거로 이동, 별거지속이라는 4가지 유형이 산출된다. 앞의

&lt;표 2&gt; 변수 및 사례분포

	제1차 1998년		제6차 2003년	
	60세 이상 (n=1,234)		60세 이상 (n=1,848)	
	비율	빈도	비율	빈도
<b>거주형태</b>				
동거	54.7%	675	47.2%	872
동거지속	40.1%	495		
동거→별거	14.6%	180		
별거	45.3%	559	52.8%	976
별거→동거	3.2%	39		
별거지속	42.1%	520		
<b>배우자 유무</b>				
유배우	68.4%	844	67.0%	1239
유배우지속	60.0%	740		
유배우→무배우	8.4%	104		
무배우	31.6%	390	33.0%	609
무배우→유배우	0.6%	7		
무배우→무배우	31.0%	383		
<b>성</b>				
남성	41.7%	515	44.0%	813
여성	58.3%	719	56.0%	1035
<b>연령대</b>				
60-64세	41.3%	510	33.2%	614
65-69세	28.5%	352	27.6%	510
70-74세	15.7%	194	19.0%	352
75세 이상	14.4%	178	20.1%	371
<b>교육수준</b>				
무학	35.3%	436	26.7%	494
초등학교	35.2%	434	36.4%	672
중학교	11.6%	143	14.9%	275
고등학교	11.1%	137	14.7%	271
대학교이상	6.8%	84	7.4%	136
<b>거주지역</b>				
수도권 및 광역시	64.8%	800	66.1%	1222
기타도 거주	35.2%	434	33.9%	626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1차와 5년 후인 제6차 조사 시점 모두에서 동거를 하는 비율(동거지속)은 40.1%, 제1차에서는 동거를 하였지만 제6차에서는 별거하는 비율(동거→별거)은 14.6%, 제1차에서는 별거를 하였지만 제6차에서는 동거하는 비율(별거→동거)은 3.2%, 제1차와 제6차 두 시점 모두에서 별거하는 비율(별거지속)은 42.1%이다. 동거지속비율과 별거지속비율의 합계가 82.2%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998년과 2003년 사이에 60세 이상 유자녀 노인들의 거주형태는 대체로 안정적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주어진 기간 동안 거주형태



의 변화를 경험하는 노인들의 대부분은 동거에서 별거로 이동하는 사례이며, 별거에서 동거로 이동하는 사례(n=39)는 매우 소수임을 알 수 있다.

결혼상태는 배우자 유무로 구분하였는데, 무배우 대부분은 사별로 인한 것이다. 제1차와 제6차 조사 분석대상들의 유배우율은 각각 68.4%, 67.0%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제1차와 제6차 조사기간 동안 결혼상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1차와 제6차 조사 모두에서 유배우인 사례(유배우지속)가 60.0%, 두 조사 모두에서 무배우인 사례(무배우지속)가 31.0%, 유배우에서 무배우로 변한 사례(유배우→무배우)가 8.4%이다. 두 조사 기간 동안 무배우에서 유배우로 변한 사례(무배우→유배우)는 0.6%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어진 기간 동안 결혼상태 또한 상당히 안정적이며 결혼상태변화는 배우자 상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분석대상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1차 조사 자료에서 41.7%, 제6차 조사 자료에서 44.0%이다. 연령분포에서는 제1차 및 제6차 조사간에 차이가 나타난다. 제1차 조사의 60세 이상 노인 1234명 중 75세 이상은 14.4%인 반면, 제6차 조사의 60세 이상 노인 1848명 중 해당비율은 20.1%이다. 이는 각 조사의 60세 이상 대상자를 고려하였을 때, 제6차에서 보다 높은 연령대의 노인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교육수준도 제1차보다는 제6차 조사의 대상자들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노인들은 무학이나 초등학교수준에 머무르는 한편 대학교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은 소수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거주 지역은 주어진 자료에서 시부와 군부의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 및 광역시 거주자와 기타 도(道)의 거주자로 구분하였다. 도 거주자는 제1차와 제6차 조사 대상자 각각의 35.2%와 33.9%를 차지하고 있다.

## V. 이항로짓모형을 통한 자녀별거여부 횡단분석

제1차 조사와 제6차 조사 각각에 대하여 60세 이상 노인들의 자녀별거율을 이항로짓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 연도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분석된 사례수가 다르며 사회인구학적 특성 또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6차 조사의 분석대상은 제1차 조사의 분석대상보다 그 사례수가 614명 많을 뿐 아니라 연령과 교육 등의 분포도 상이하다. 이와 같은 분석대상의 차이점은 직접적이고 엄밀한 비교를 제약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연도에 있어서 자녀별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

**<표 3> 제1차와 제6차 분석대상노인 자녀별거여부에 대한 이항로짓계수와 표준오차**

	제1차 1998년		제6차 2003년	
	b	s.e.	b	s.e.
상수	-0.978***	0.176	-1.369***	0.164
성(준거집단: 여성)				
남성	-0.350**	0.146	-0.405***	0.117
연령대(준거집단: 60-64세)				
65-69세	0.339**	0.145	0.573***	0.127
70-74세	0.714***	0.190	0.926***	0.147
75세 이상	0.224	0.198	0.746***	0.156
배우자유무(준거집단: 무배우)				
유배우	0.815***	0.153	1.029***	0.126
교육수준(준거집단: 무학)				
초등학교	-0.089	0.153	0.308**	0.138
중학교	0.262	0.216	0.271	0.177
고등학교	-0.146	0.227	0.242	0.182
대학교 이상	0.653**	0.270	0.610***	0.226
거주지역(준거집단: 수도권 및 광역시)				
기타 도	0.264**	0.126	0.775***	0.107
LR $\chi^2$	59,440		169,95	
d.f.	10		10	
n	1234		1948	

주: \* p<0.10, \*\* p<0.05, \*\*\* p<0.01

학적 특성을 살펴보는 데는 여전히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의 <표 3>에서 첫 칼럼은 제1차 조사인 1998년 그리고 둘째 칼럼은 제6차 조사인 2003년의 이항로짓계수와 표준오차를 제시한다. 종속변수는 해당 연도에 동거할 확률에 대비한 별거확률이며, 이를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는 성, 해당연도의 연령대, 해당연도의 결혼상태, 교육수준 및 해당연도의 거주지역이다. 제1차 조사인 1998년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자녀와 별거할 확률은 동원된 모든 독립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에게서 자녀별거확률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낮다. 연령대의 경우 60-64세에 비해 65-69세 및 70-74세의 별거확률이 높지만 75세 이상의 별거확률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무배우자보다는 유배우자에게서 자녀별거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교육에서는 무학에 비해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들이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거주지역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비해 기

타 도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녀별거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제6차 조사가 이루어진 2003년 노인들에게서 관찰되는 자녀별거확률형태 또한 제1차 조사 대상자 분석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조금 더 유의미하거나 그 크기가 큼을 보여준다. 연령의 경우 제1차 조사와는 달리 60-64세 노인에 비해 75세 이상 노인들이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60-64세 노인들을 기점으로 그 이후 연령대의 자녀별거확률이 거꾸로 된 U자 형태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1998년과 2003년이 공통적이다. 한편, 교육수준에서는 2003년 조사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노인들이 무학의 노인들보다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전 연도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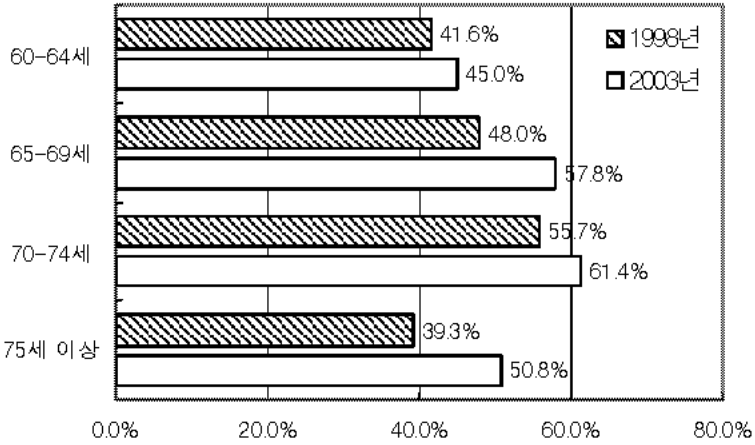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연령과 결혼상태(그리고 이들의 변화)이며, 이들의 효과를 모형상의 예측확률로 구한 결과는 각각 다음의 <그림 1>, <그림 2>와 같다. 우선 연령대별 자녀별거확률을 보여주는 <그림 1>에 의하면 제1차 조사인 1998년과 제2차 조사인 2003년 모두에 있어 60-64세의 별거확률보다 65-69세 및 70-74세의 별거확률이 높으며, 75세 이상의 별거확률은 그 이전 연령대의 별거확률보다 낮다. 따라서 앞서 이항로지토모형에서 살펴본 연령과 별거확률간의 거꾸로 된 U자 형태의 관계가 재차 확인된다. 한편, 각 연령대에 있어 별거확률은 1998년보다 2003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도 확인된다.

제시된 <그림 1>에 주어진 1998년과 2003년이 예측확률을 코호트별 전이율로 접근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가령, 1998년에 60-64세 노인들의 자녀별거확률이 41.6%이고, 이들이 65-69세가 되는 2003년 자녀별거확률이 57.8%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혹자는 이 코호트의 자녀별거확률은 60대 초반에서 60대 후반으로 감에 따라 41.6%에서 57.8%로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3년에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들은 1998년부터 자녀와 별거한 노인(별거지속)과 1998년에는 자녀와 동거하다 2003년에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동거→별거)으로 구성된다. 또한 1998년에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 중 일부는 2003년에 자녀와 동거하게 되기도 한다(별거→동거). 따라서 1998년과 2003년 사이에 다양한 전이의 경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형태 변화(혹은 지속)의 일방향을 상징한 코호트적 접근은 제한점을 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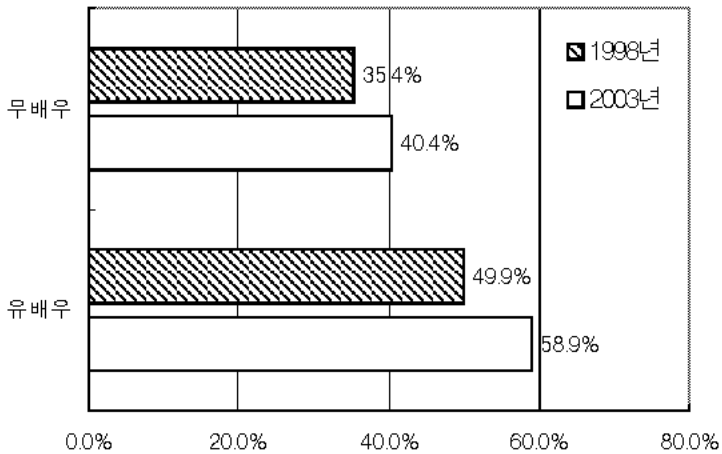
배우자 유무별 자녀별거예측확률을 보여주는 <그림 2>에 의하면, 제1차 조사시점과 제6차 조사시점 모두에서 무배우 노인보다는 유배우 노인에게서 해당

4) 이상의 결과들은 노년기 거주형태 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각 변수의 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 연구에서 생략하기로 한다.

<그림 1> 횡단적 접근의 이항로지모형에 따른 연령대별 자녀별거예측확률



<그림 2> 횡단적 접근의 이항로지모형에 따른 배우자유무별 자녀별거예측확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유무에 관계없이 자녀별거확률이 1998년보다는 2003년에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횡단적 분석을 통해 유배우는 자녀별거확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보다 나아가, 배우자 상실(즉 유배우→무배우로의 전이)은 자녀와의 동거를 유발할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해석은 이미 많은 질적 조사연구에서 밝혀졌다(예. Kim and Rhee, 1999b). 그러나 배우자 상실로 인해 거주형태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계량적 접근은 제한되어 있다.

## VI. 다항로지모형을 이용한 거주형태 변화분석

앞에서 살펴본 횡단분석을 통해서서는 개인적 수준의 연령증가 및 혼인상태 변화에 따른 거주형태 변화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다항로지모형을 이용해 제1차 조사인 1998년과 제6차 조사인 2003년간의 거주형태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다음의 <표 4>는 두 시점 모두에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동거지속)을 준거로 하고 두 시점 간에 동거에서 별거로 이동한 노인들(동거→별거), 별거에서 동거로 이동한 노인들(별거→동거), 두 시점 모두에서 별거하는 노인들(별거지속)의 확률을 추정한 결과이다.

제시된 다항로지모형에서 연령대는 1998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 속에는 1998년과 2003년간의 연령증가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종속변수 자체가 두 시점간의 변화를 다루고 있으므로 1998년의 연령은 곧 2003년의 증가된 연령(5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배우자유무의 경우 두 시점간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유배우지속(준거), 무배우지속, 무배우에서 유배우로 전환, 유배우에서 무배우로의 전환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거주지역은 2003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두 시점간에 거주지역 효과의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시점 중 한 시점을 이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sup>5)</sup>.

우선 <표 4>의 첫째 칼럼은 동거를 지속할 확률에 비해 동거에서 별거로 옮겨갈 확률을 보여주는데, 이 확률은 연령, 배우자유무변화, 교육수준,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주어진 기간 동안(즉, 1998년부터 향후 5년간) 동거에서 별거로 움직일 확률은 60-64세 노인보다는 75세 이상 노인에게서

5) 이 연구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앞서 살펴본 1998년 자녀별거확률 모형에서 1998년의 거주지역변수를 2003년의 그것으로 대체해도 모형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lt;표 4&gt; 제1차(1998년)와 제6차(2003년) 간 거주형태 변화에 대한 다항로짓계수와

	표준오차					
	동거→별거		별거→동거		별거지속	
	b	s.e.	b	s.e.	b	s.e.
상수	-0.804***	0.272	-2.492***	0.499	0.185	0.193
성(준거집단: 여성)						
남성	0.032	0.223	0.360	0.421	-0.437**	0.171
연령대(준거집단: 60-64세→65-69세)						
65-69세→70-74세	0.045	0.216	-0.525	0.442	0.430**	0.166
70-74세→75-79세	-0.267	0.312	-0.201	0.506	0.725***	0.203
75세 이상→80세 이상	-1.795***	0.545	-0.620	0.583	0.107	0.216
배우자유무변화(준거집단: 유배우지속)						
무배우지속	-1.881***	0.305	-0.421	0.474	-1.321***	0.179
무배우→유배우	-0.423	1.175	—	—	-0.594	0.841
유배우→무배우	-0.691*	0.371	0.900	0.484	-0.606**	0.250
교육수준(준거집단: 무학)						
초등학교	0.449*	0.251	0.267	0.443	0.022	0.170
중학교	0.272	0.351	0.341	0.594	0.334	0.244
고등학교	0.097	0.346	-0.953	0.840	-0.078	0.252
전문대학 이상	0.305	0.443	0.745	0.702	0.730**	0.311
거주지역(준거집단: 수도권 및 광역시)						
기타 도	0.641***	0.196	-0.113	0.391	0.596***	0.143
LR $\chi^2$			218.890			
d.f.			36			
n			1234			

주: 1) \* p<0.10, \*\* p<0.05, \*\*\* p<0.01

2) 종속변수 준거집단은 동거지속.

훨씬 낮게 나타난다(-1.795). 이는 고령층에서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 별거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한편, 주어진 기간 동안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에 비해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이 동거에서 별거로 이전할 확률은 매우 낮다(-1.881). 이와 함께 유배우를 지속하는 노인들에 비해 배우자를 상실한 노인들 또한 동거에서 별거로 이전할 확률이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전에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 중 배우자가 없었거나 이후 시점에 이르기 동안 배우자를 상실한 노인들은 자녀와 별거하게 될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 된다. 이 외에도 교육수준(초등학교 vs. 무학)과 거주지역(도 지역 vs. 수도권 및 광역시)도 어느 정도 별거로의 전이를 높이는 결과를 가진다.

동거지속에 비해 별거에서 동거로 전환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

4>의 둘째 칼럼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앞의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분석대상 1234명 중 별거에서 동거로 전환할 비율은 3.5%(n=39)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크게 관찰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유무변화는 중요한 차이를 드러낸다. 우선, 배우자 유무에서 무배우에서 유배우로의 전환에 따른 계수는 무의미하게 된다. 이는 별거에서 동거로의 전환사례가 워낙 적은데다 무배우에서 유배우로의 전환사례 또한 매우 적기 때문이다(n=3).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배우자 상실에 따른 별거에서 동거로의 전환이다. 이 변수의 계수(0.900)에 의하면 별거에서 동거로 전이할 확률(vs. 동거지속)은 주어진 기간 동안 유배우를 지속한 노인보다 배우자를 상실한 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이는 배우자 상실에 따라 별거에서 동거로 전환할 가능성을 계량적으로 증명한다.

별거를 지속할 확률(vs. 동거지속)은 셋째 칼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해당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 연령대, 배우자유무변화, 교육수준, 거주지역이다. 별거지속확률은 많이 알려진 바대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낮다. 연령의 경우, 주어진 연령대의 최하위 연령대와 최상위 연령대에서 별거 지속 확률은 낮지만 중간연령대에서는 해당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60대 후반과 70대 초반 노인들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동거를 지속하기보다 별거를 지속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배우자 유무변화에서는 무배우를 지속하는 노인들과 배우자를 상실한 노인들에게서 별거를 지속할 확률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배우자 상실에 따른 별거에서 동거로의 변화를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에서는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노인들에게서 별거지속확률이 높다. 또한 수도권 및 광역시 거주자에 비해 기타 도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서 별거지속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다항로지모형의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우선 다항로지모형의 종속변수에서 거론되는 확률이 준거집단에 대비한 비(ratio)의 형태라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비교되는 거주형태가 때로는 쉽게 이해될 수 없는 거주형태 유형으로 구성된다는 점에도 해석상의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어려움은 다항로지모형의 계수값을 이용한 예측확률의 산출로 어느 정도 해결가능하다. 다음의 <표 5>는 앞의 다항로지모형에 근거해 연령증가와 배우자유무변화에 따른 거주형태 변화 예측확률을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우선 전 연령대에서 동거지속확률과 별거지속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연령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노인들은 주어진 거주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증가에 따

〈표 5〉 다항로짓모형에 따른 거주형태 변화 예측확률 분포

	동거지속	동거→별거	별거→동거	별거지속	합계	사례수
<b>연령증가</b>						
60-64세→65-69세	40.1%	14.6%	3.2%	42.1%	100.0%	510
65-69세→70-74세	35.5%	13.2%	1.9%	49.5%	100.0%	352
70-74세→75-79세	31.2%	8.7%	2.1%	58.0%	100.0%	194
75세 이상→80세 이상	43.5%	3.1%	2.1%	51.3%	100.0%	178
<b>배우자 상태 변화</b>						
유배우지속	40.1%	14.6%	3.2%	42.1%	100.0%	740
무배우지속	62.0%	5.7%	3.9%	28.4%	100.0%	104
무배우→유배우	53.5%	13.7%	—	32.8%	100.0%	7
유배우→무배우	49.4%	10.3%	8.6%	31.7%	100.0%	383

큰 거주형태 변화는 관찰된다. 60대 초반에서 60대 후반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동거에서 별거로 전이하는 비율은 14.6%에 이른다. 한편,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으로 연령이 증가하면서도 해당 비율은 13.2%에 이른다. 그러나 75세 이상에서의 연령증가에 따른 동거에서 별거 전이 비율은 3.1%에 불과하다. 따라서 동거에서 별거로의 이동은 저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며, 고령층에서는 그 가능성이 적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 유무상태의 변화에 따른 거주형태 전이 비율을 살펴보면 동거를 지속하는 비율이 주어진 기간 동안 배우자가 없었거나 배우자를 상실한 경우에 각각 62.0%, 49.4%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sup>6)</sup>. 한편 별거를 지속하는 비율은 유배우를 지속한 노인들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42.1%). 동거에서 별거로의 전이 비율은 유배우를 지속하는 노인들에게서 14.6%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별거에서 동거로 전이할 비율은 주어진 기간 동안 배우자 상실을 경험한 노인들에게서 높음을 알 수 있다(8.6%).

## Ⅶ.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한 거주형태별 전이분석

다항로짓모형이 갖는 해석상의 어려움을 덜려는 노력은 다소 통계모형상의 정확성을 상실하더라도 보다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한 분석기법을 동원하는 것이

6) 무배우에서 유배우로의 전환사태에 대한 비율은 위와 그 사례가 적기 때문에 부의미하다.



다. 여기서는 제1차 조사 시점인 1998년의 거주형태별로 향후 5년간의 거주형태 변화를 살펴보는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하였다. 다음의 <표 6>은 1998년과 2003년 사이 동거에서 별거로, 그리고 별거에서 동거로 전이할 확률을 추정한 이항로짓모형의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표 6>의 첫 칼럼에 제시된 동거에서 별거로의 전이 분석결과(n=675)를 살펴보면, 1998년에 동거하던 노인 중 2003년에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들은 연령, 배우자유무변화,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들 집단에서는 동거에서 별거로의 전이비율이 60대 초반에서 60대 후반으로 연령이 증가한 노인들에 비해 75세 이상에서 80세 이상으로 연령이 증가한 노인들에게서 낮게 나타난다(-1.560). 이는 동거에서 별거로의 전이가 최고령층에서는 적게 나타남을 의

<표 6> 제1차 조사 당시 거주형태별 변화에 대한 이항로짓계수와 표준오차

	동거→별거		별거→동거	
	b	s.e.	b	s.e.
상수	-0.785***	0.278	-2.623***	0.494
성(준거집단: 여성)				
남성	-0.058	0.233	0.755*	0.416
연령대(준거집단: 60-64세→65-69세)				
65-69세→70-74세	0.079	0.222	-0.902**	0.442
70-74세→75-79세	-0.131	0.324	-0.881*	0.506
75세 이상→80세 이상	-1.560***	0.566	-0.649	0.557
배우자유무변화(준거집단: 유배우지속)				
무배우지속	-1.867***	0.316	0.775*	0.464
무배우→유배우	-0.411	1.178	—	
유배우→무배우	-0.584	0.384	1.444**	0.489
교육수준(준거집단: 무학)				
초등학교	0.396	0.259	0.214	0.447
중학교	0.192	0.359	-0.062	0.601
고등학교	0.063	0.362	-0.783	0.841
대학교 이상	0.446	0.456	0.093	0.691
거주지역(준거집단: 수도권 및 광역시)				
기타 도	0.620***	0.204	-0.773*	0.398
LR $\chi^2$	124.980		19.150	
d.f.	12		11	
n	675		556	

주: 1) \* p<0.10, \*\* p<0.05, \*\*\* p<0.01

2) 거주지역은 제6차(2003년)의 자료를 이용. 별거에서 동거로의 전이 분석시 무배우에서 유배우로의 변화효과는 추정되지 않음. 이는 해당사례가 극소수이기 때문임. 따라서 자유도가 한 개 적음.

미한다. 한편, 해당전이비율은 유배우상태를 유지한 노인보다는 무배우상태를 유지한 노인에게서 낮게 나타난다(-1.867). 또한 2003년에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보다는 기타 도에 거주하는 노인에게서 동거에서 별거로의 전이가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표 4>에 제시된 다항로짓모형의 동거에서 별거로의 전이 유형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항로짓모형의 결과에서는 다항로짓모형에서 발견되었던 배우자상실에 따른 부정적 효과와 교육 수준(초등학교 vs. 무학)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약화된다. 이는 분석에 동원된 사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표 6>의 둘째 칼럼에 제시된 별거에서 동거로 옮겨갈 확률( $n=556$ )을 살펴보면, 성, 연령, 배우자유무변화 및 거주지역에 따라 전이확률이 다름을 알 수 있다<sup>7)</sup>. 이에 따르면, 별거에서 동거로의 전이확률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높다(0.755). 또한 해당 확률은 60대 초반에서 60대 후반으로 연령이 증가한 집단보다는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으로(-0.902), 그리고 70대 초반에서 70대 후반으로(-0.881) 연령이 증가한 집단에서 낮게 나타난다. 한편, 배우자 유무상태의 변화에 따른 별거에서 동거로의 전이확률은 분명해진다. 유배우상태를 지속한 노인에게 비해 무배우상태를 지속한 노인의 해당 전이확률이 높게 나타난다(0.775). 또한 주어진 기간 동안 배우자를 상실한 노인들의 해당 전이확률은 확연히 높게 나타난다(1.444). 이 외에도 수도권 및 광역시 거주노인에 비해 기타 도 거주노인의 별거에서 동거로의 전이확률은 낮게 나타난다(-0.773). 별거에서 동거로의 전이에 대한 이상의 결과들은 다항로짓모형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못한 부분이다. 그러나 다항로짓모형에서 획득한 예측모형(<표 5>참조)에서 연령증가와 배우자 유무상태변화의 효과는 이미 파악된 것들이라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7>은 앞의 이항로짓모형에서 구해진 계수들을 이용해 연령증가와 배우자 유무 상태변화별로 거주형태 변화 예측확률을 확보한 결과이다. 이 표에 의하면 동거에서 별거로 전이할 확률은 저연령층에서 더 많이 발견됨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60대 초반에서 6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자녀와 동거하던 노인이 별거할 확률은 35.1%이다. 이에 비해 75세 이상 노인 중 자녀와 동거하던 노인이 5년 후에 자녀와 별거할 확률은 5.3%에 불과하다. 한편, 동거에서 별거로의 전이확률은 유배우상태를 지속한 노인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39.9%).

별거에서 동거로 옮겨갈 확률은 동거에서 별거로 옮겨갈 확률에 비해 대체로 낮게 나타난다. 연령증가에 따른 별거에서 동거이전 확률의 차이를 보면, 최저위

7) 별거에서 동거로의 전이확률을 구하는 과정에서 무배우에서 유배우로 전환된 사례에 대한 계수추정치는 획득되지 못했다. 이는 해당사례가 3사례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lt;표 7&gt; 제1차 거주형태별 변화에 대한 예측확률 분포

	동거→별거	별거→동거
연령증가		
60-64세→65-69세	35.1%	9.8%
65-69세→70-74세	31.9%	5.1%
70-74세→75-79세	24.7%	5.8%
75세 이상→80세 이상	5.3%	7.5%
배우자 상태 변화		
유배우지속	39.9%	6.1%
무배우지속	7.4%	7.7%
무배우→유배우	24.8%	—
유배우→무배우	22.7%	16.4%

연령층과 최상위 연령층에서 해당 확률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한편, 배우자 유무 상태 변화에 따른 해당 확률의 변화는 주어진 기간 동안 배우자를 상실한 노인들에게서 높게 나타난다(16.4%).

## VIII. 정리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이 연구는 노년기 거주형태에 관한 연구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횡단적 접근이나 추이연구에 머무름으로 노년기의 거주형태의 변화와 지속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출현율과 전이율의 구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패널자료를 이용한 거주형태 변화 분석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노인들의 거주형태 차이와 생애주기적 변화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실시하려는 목적 하에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제1차(1998년) 및 제6차(2003년) 노동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은 각 연도에서 발견되는 자녀별거율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횡단적 분석, 다항로지모형을 통한 거주형태 변화분석, 이전 시점의 거주형태별 변화분석 등의 세 주제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자녀별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횡단적 접근이 갖는 설명력은 있으나 생애주기별로 변화하는 거주형태의 역동성을 포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면이 재차 확인되었다. 거주형태의 역동성은 이전과 이후의 거주

형태의 조합을 종속변수로 한 다항로지모형분석 및 거주형태별 향후 변화에 대한 이항로지모형분석으로부터 충분히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전의 거주형태(자녀별거이든 자녀동거이든)를 지속하지만, 일부 노인들은 거주형태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년기 거주형태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연령증가와 배우자 상태의 변화의 효과는 뚜렷이 관찰되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특히 계량적 접근을 실시하였던)에서 제약되었던 노년기 거주형태의 지속성과 변화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패널자료를 이용해 시점 간의 변화를 살펴려는 연구들이 고려할만한 방법론적 예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의의도 더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구과제에서 도전하고 극복할 제한점이 남는다.

첫째, 이 연구는 노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주목함으로써 노년기 거주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이들 요인들이 충실히 논의된 바가 있으며, 이 연구의 목적이 생애주기별 변화, 특히 연령과 결혼상태변화에 따른 거주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데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기 거주형태의 다양성과 역동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는 자녀관계 및 상황, 경제상태, 건강상태 및 그 변화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1998년과 2003년이라는 두 시점 간의 변화여부에만 주목하였다. 그러나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에서 언급되듯이 변화의 시점 및 경로(sequence) 등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거주형태 변화의 시점은 주어진 거주형태를 얼마나 유지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거주형태 변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주요한 요소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어진 기간 동안 거주형태 변화 여부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언제 발생하였는지는 살피지 못하고 있다. 변화경로 또한 거주형태 변화이해를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거주형태 변화를 얼마나 경험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5년이라는 기간 안에서도 동거→별거→동거와 같은 사례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으며, 이 사례는 거주형태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 된다.

셋째, 노년기 거주형태는 단순히 자녀와의 동거여부를 벗어나 보다 세분화될 필요성이 있다. 가령 자녀와의 동거라 하더라도 미혼 자녀와의 동거와 기혼 자녀와의 동거는 세대간 관계에 다른 함의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성인자녀 세대와 동거하는지 중고령 자녀세대와 동거하는지도 세대간 관계에 큰 차이를 의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의 거주형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합적인 관계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년기 거주형태 변화 자체에 주목하는 이 연구는 노년기 거주형태에 대한 방법론적 재점검을 촉발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노년기의 삶을 보다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적인 논의와 접근방식이 노년기 거주형태에 관한 후속연구의 한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두섭 (2001) “한국 사회구조의 변화와 노년기의 가족관계”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23-72.
- 김두섭·박경숙·이세용 (2000)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와 중년층의 노후부양관” 《한국인구학》 23(1): 55-90.
- 김정석 (2001) “노후부양주체로서의 노인, 가족, 사회/국가의 역할: 중년층의 노후부양태도와 준비실태를 중심으로”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451-484.
- \_\_\_\_\_ (2002) “제8장. 가족과 가구변화” 김두섭 외 (편) 《한국의 인구》 통계청, 247-282.
- \_\_\_\_\_ (2005) “초고령노부모들의 세대구성별 가구형태” 《가족과 문화》 17(3): 3-18.
- 박경숙 (2003a)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의암출판.
- \_\_\_\_\_ (2003b) “노인가구 변화의 인구·사회 요인” 《통계연구》 8(1):1-32.
- 박재홍 (1999) “기성세대의 생애사와 세대차이 인지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 33: 257-296.
- 원영희 (1995) “동·별거 형태가 한국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2): 97-116.
- 유성호 (1996) “노인과 성인자녀의 별거를 결정짓는 변인: 그 이론적 탐색” 《한국노년학》 16(1): 51-68.
- 윤순덕·한경혜 (2000) “떠난 장남, 남은 장남: 생애과정 관점에서 본 농촌주민의 거주유형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4: 649-669.
- 조성남 (2004) 《에이지 불 시대: 고령화 사회의 미래와 도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Agree, E. M., A. E. Biddlecom, M. C. Chang and A. E. Perez. (2002)

- “Transfers from Older Parents to Their Adult Children in Taiwan and the Philippines”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7(4): 260-294.
- Angel, R. J. (2002) “Living Arrangements and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Use Elderly Asians and Hispanics in the United States: The Role of Nativity and Citizenships” *Journal of Ethnic & Migration Studies* 28(3): 553-563.
- Casterline, J. B., L. Williams, A. Hermalin, M. C. Chang, N. Chayovan, P. Cheung, L. Domingo, J. Knodel and M. B. Ofstedal (1991) “Differences in the Living Arrangements of the Elderly in Four Asian Countries: The Interplay of Constraints and Preferences” *PSC Research Report Series No. 91-10*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chigan.
- Chen, C. (2001) “Aging and Life Satisfac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54(1): 57-79.
- Choi, N. G. (1999) “Living Arrangements and Household Compositions of Elderly Couples and Single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31(1/2): 21-25.
- Da Vanzo J. and A. Chan. (1994)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Malaysians: Who Coresides with their Adult Children?” *Demography* 31(1): 95-113.
- Frankenberg, E., A. Chan and M. B. Ofstedal (2002) “Stability and Change in Living Arrangements: Evidence from Indonesia, Singapore and Taiwan” *Population Studies* 56(2): 201-213.
- Goldscheider, C. and M. B. Jones (1989) “Living Arrangements among the Older Population: Constraints, Preferences, and Power” *Ethnicity and New Family Economy: Living Arrangements and Intergenerational Financial Flows* edited by F. K. Goldscheider and C. Goldscheider, Boulder, CO: Westview.
- Hashimoto, A., H. Kendig, and L. C. Coppard (1992) “The Family Support to the Elderly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Family Support for the Elderly: The International Experience* edited by H. L. Kendig, A. Hashimoto and L. C. Coppard, N.Y.: Oxford University Press.
- Hermalin, A. I. (2000) “Ageing in Asia: Facing the Crossroads” *Comparative Study of the Elderly in Asia Report Series No. 00-55* University of Michigan Population Studies Center, Ann Arbor, Michigan.
- Hermalin, A. I., M. B. Ofstedal, K. R. Baker and Y. L. Chuang (2005) “Moving from Household Structure Living Arrangement Transition: What do

- We Learn?" *Comparative Study of the Elderly in Asia Report Series No. 05-61* University of Michigan Population Studies Center, Ann Arbor, Michigan.
- Hermalin, A. I., M. C. Chang, H. S. Lim, M. L. Lee and M. B. Ofstedal (1990) "Patterns of Support among the Elderly in Taiwan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PSC Research Report Series No. 90-94*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chigan.
- Jappelli, T. (2000) "The Age-Wealth Profile and the Life-Cycle Hypothesis: A Cohort Analysis with a Time Series of Cross-Sections of Italian Households"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6(1): 57-75.
- Kim, C. S. and B. A. Anderson (2003) "Changes in Living Arrangements of Ethnic Korean Elderly in China, 1982-1990" **《동아시아: 비교와 전망》** 1: 5-24.
- Kim, C. S. and K. O. Rhee (1997) "Variations in Preferred Living Arrangements among Korean Elderly"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2(2): 189-202.
- \_\_\_\_\_ (1999a) "Family, Self or State as a Desired Source of Support for the Elderl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2(2): 192-219.
- \_\_\_\_\_ (1999b) "Living Arrangements in Old Age: Views of Elderly and Middle Aged Adults in Korea" *Hallym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1(2): 94-111.
- \_\_\_\_\_ (2000) "Correspondence between Actual Coresidence and Desire for Coresidence among the Elderly in Korea" *Hallym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2(1): 36-48.
- Kim, I. K. and C. S. Kim (2003) "Patterns of Family Support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Social Indicators Research* 63: 437-454.
- Kim, I. K., J. Liang, K. O. Rhee and C. S. Kim (1996) "Population Aging in Korea: Changes Since the 1960s"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1: 369-388.
- Knodel, J. and N. Chayovan (2001) "Family Support and Living Arrangements of Thai Eld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 121-127.
- Knodel, J. and N. Debavalya (1992) "Social and Economic Support Systems for the Elderly in Asia: An Introduction" *Asia-Pacific Population Journal* 7(3): 5-12.
- Kojima, H. (1989) "Intergenerational Household Extension in Japan" *Ethnicity and the New Family Economy: Living Arrangements and Intergenerational Financial Flows* edited by F. K. Goldscheider and C. Goldscheider, Boulder,

CO: Westview.

- Lee, I. S. and J. H. Ham (2001) "Fertility Factors and Housing Status of Korean Elderly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 159-171.
- Lee, M. A. and M. J. Weber (2000) "Intergenerational Reciprocal Care and Eldely Living Arrangemen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3): 129-142.
- Logan, J. R. and B. Fuqin (1999) "Family Values and Coresidence with Married Children in Urban China" *Social Forces* 77(4): 1253-1282.
- Martin, L. (1989) "Living Arrangement of the Elderly in Fiji, Korea, Malaysia, and the Philippines" *Demography* 26(4): 627-643.
- Martinez, L. L. (2002) "The Elder in the Cuban American Family: Making Sense of the Real and Ideal"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3(3): 359-375.
- Mason, K. O. (1992) "Family Change and Support of Elderly in Asia: What Do We Know?" *Asia-Pacific Population Journal* 7(3): 13-32.
- Ram, B. (2003) "Changes in Family Structure and Child Outcomes: Roles of Economic and Familial Resources" *Policy Studies Journal* 31(3): 309-330.
- Tan, Joo Ean (2002) "Living Arrangements of Never-Married Thai Women in a time of Rapid Social Change" *Journal of Social Issues in Southeast Asia* 17(1): 24-51.
- Tsuya, N. O. and L. G. Martin (1992) "Living Arrangements of Elderly Japanese and Attitudes Toward Inheritance" *Journal of Gerontology* 47(2): S45-54.
- Ward, R. A. and G. Spitze (1992) "Consequences of Parent-adult Child Coresidence: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Family Issues* 13(4): 553-572.
- Zimmer, Z. and S. K. Kim (2001) "Living Arrangements and Socio-demographic Conditions of Older Adult in Cambodia"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6(4): 353-381.